

#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긴 어디야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8)

정신을 차린 무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보랏빛 하늘이었다. 노인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되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는 이곳을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었다. '왜 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실망감 때문일까. 무니는 전에 없던 피로와 졸음을 느꼈다. 쯤처럼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힘든가보구나."  
무니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렸다. 노인과 아상티가 나란히 서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걸 마셔 보렴."  
그가 손에 들어 보인 것은 조그만 물병이었다. "그게 뭐야?"  
무니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피로움이 없는 연못에서 조금 떨어진 물이란다. 너도 언젠가 가보지 않았었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녀석, 말할 기운도 없어 보이더니. 아무튼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걸 마셔 보려무나."

무니는 노인이 건넌 병을 받아들여 물을 한 방울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혀끝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단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온 몸으로 느껴졌다. 몸으로 맛을 느끼다니, 확실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였다. 무니는 피로가 풀리면서 서서히 정신이 맑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부스러져 있던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어디냐? 한결 기분이 상쾌해졌지?"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야, 지금 여기서 당신의 기억 속인 게 확실해?"  
노인은 무슨 뜻이냐는 듯 무니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곳이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면, 당신이 이 장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건가 해서."  
무니는 상대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말해봐. 여긴 어디야?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지? 이번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곳이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단다."  
무니의 성화에 노인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러니 네 말처럼 나의 기억 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무니는 그가 자신의 말을 순순히 인정하자 조금 당황스러웠다.



삽화 · 김홍인

"그럼 여긴 어디데?"  
"이곳은 내 머릿속에 언제부터인가 꽤 자주 떠오르는 곳이란. 처음엔 어디가에 묻어두었던 아주 오래 전의 기억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장면들이 조금씩 늘어나더구나. 어떤 날은 금빛 먼지들이 세차게 날리더니, 다음 날은 그 먼지가 커다란 형상을 이뤘어,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었지."

"그는 여기서 말을 멈추더니 보랏빛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장면들을 되새기는 듯 했다. "그럼 사트바 카르만이라는 건, 당신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야?"

"그렇지는 않아. 그건 물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존재니까."  
무니는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 네 머릿속에 '용'이라는 말과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본 적은 없더라도 용이 존재한다는 것과 어떻게 생긴 것인지 상상이나 추측은 할 수 있지 않니? 내게 사트바 카르만도 그런 것이었던 다. 본 적은 없지만, 기억은 하고 있던 존재였지. 어

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묻지 말거라. 그건 나조차도 설명하기 힘들니까 말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저것이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거란다."

"바다처럼? 내가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랬어. '아. 이게 바로 바다로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

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무니는 자신의 발길을 내려다봤다. 금빛을 거의 잃긴 했지만 여전히 고운 모래 먼지들이 쌓여있었다. 그는 바닥을 툭툭 치며 작은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여긴 당신의 꿈속 같은 건가?"

"그건 아니야. 나는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니까. 물론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상상이나 환상, 꿈같은 것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기억이나 예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 중 대부분이 기억이긴 하지만."

"하지만 여긴 기억 속이 아니라고 했잖아?"  
놀란 무니는 바닥을 차다말고 노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당신의 예지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뜻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긴 분명

히..."  
무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말했잖아?"  
"그래. 그건 틀림없어."

"예지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의 시작이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 있냐고. 시간은 이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흘렀는데..."

무니는 머릿속이 갑자기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노인을 따라 갔던 기억 속 한 장면이 의문을 품기 위한 실마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책이었나?' 무니는 고개를 가웃했다. 문득 기억 속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예스고 있는 이 순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큅!' 하고 웃고 말았다. 그때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표정이 순식간에 잘도 변하는구나."  
아상티의 등을 쓰다듬던 노인이 그런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무니는 이 말에 대꾸하는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여기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면,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면 말야. 이젠 미래의 모습인 거 아니야?"

무니는 자신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노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노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지한 얼굴을 짓고 있었다.

"한 세계는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 남자가 쓴 책에서 읽었던 이 문장처럼, 언젠가 내가 있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또 다음 세계가 생기는 거라며, 영감도 그랬잖아. 세상의 시작과 끝은 영원한 순환 같은 거라고."

그러나 노인은 아상티의 등만 계속 쓰다듬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무니는 또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한 말의 절반은 맞고, 그 나머지는 틀렸다고 해야 할 것 같구나."

노인은 이제 다 됐다는 듯 아상티의 등을 툭툭 두드리주며 말했다. "네 말처럼 이곳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 세계의 과거가 아닌 건 맞아. 하지만 미래라고 볼 수는 없단다."

"무슨 말이야?"  
무니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의 눈을 쳐다봤다. 노인은 아상티를 쓰다듬던 손을 소년의 머리 위에 올리며 말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나도 처음엔 이곳이 기억의 한 장면이었거니와. 이미 사트바 카르만이라는 존재와 금빛 먼지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점점 늘어났어.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이 맨 처음의 시간이라면,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싶더구나. 그래서 나중엔 예지력에 의해 떠오르는 미래의 장면들일 거라고 생각해 되었고."

"그런데 왜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나의 능력 때문이란다."

무니는 "무슨 능력?"이라고 되물었다. "나는 언제든 기억과 현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미래로는 절대로 가볼 수가 없거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지력을 가졌다고 말했잖아."  
"맞아. 시간이 흘러간 이후의 일들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미리 가볼 수는 없다는 뜻이란다. 세상의 일들은 언제 어느 때든 바뀌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예측 못할 가능성들이 이곳저곳에 숨어있거든. 훌륭한 예언자라고 칭송되는 몇몇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그 중에는 분명 틀린 예언들이 종종 있어오지 않았니."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긴 어디야?"

"이곳은 '지금 이 순간'의 다음 세계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온 건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일 셈이지."

##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①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②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④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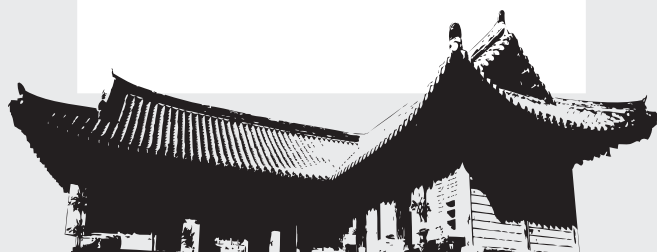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령료가 있습니다.



## (사)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귀의 삼보 하옵고

한국불교계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 결속으로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를 4천만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오며 단결과 화합의 목탁을 울리며 민족의 새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를 봉행함에 있어 시방삼세 제방에 선포합니다.

불교계의 새 미래

- ◆ 미래의 불교정신으로 뭉친다.
- ◆ 미래의 민족정신으로 단결한다.
- ◆ 미래의 결사정신으로 정진한다.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원 일동

## 한방(韓方)치료로

### 간 질환

## 백반증(백남)

### 건 선

## 한슬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